

광주FC 수문장 김경민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겠다”

‘꾸준함’으로 리그 대표 ‘거미손’ 성장... 프로 11년차에 첫 태극마크
“이정효 감독은 ‘로또’... 실점률에 신경 쓰며 동료들의 수호신 될 것”

광주FC 수문장 김경민이 ‘꾸준함’이라는 무기로 또 다른 추억 쌓기에 나선다. 김경민은 지난 시즌 프로에서 잊지 못할 순간들을 보냈다. 팀은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라는 첫 무대에서 아시아 강팀들을 상대로 4승 1무 1패의 성적을 올리며 16강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1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5·6차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면서 프로 11년 차에 처음 태극마크도 달았다. 김경민은 “리그가 더 중요했기에 ACLE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라 기대는 안 했다”면서도 “감독님도 그렇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한 게 좋은 결과로 나온 것 같다. 경기적으로도 긍정적인 모습이나오고, 결과도 좋았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발탁 순간은 아직도 꿈만 같다. 김경민은 “국가대표라는 자리가 항상 꿈꿔왔던 것이고, 가고 싶은 곳인데 처음 발탁 소식을 듣고는 안 믿었다. 너무 큰 곳이고 ‘내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며 “좋은 선수들과 같이 하면서 많이 배웠고, 나에 대해서도 다시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이름을 올렸지만 김경민은 자신을 특별한 것 없는 선수라고 말한다. 김경민은 “꾸준히 해서 또 티 안 나고 그냥 무난하게 해와서 대표가 됐던 것 같다. 딱히 자신 있는 것은 없는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노력한다”며 “잘하고 못 하는 것은 진짜 한 곳이다. 나는 성실함으로 그 한 곳을 이기고 싶다”고 말했다. 꾸준함으로 리그와 나라를 대표하는 골키퍼로 자리한 그에게는 이정효라는 좋은 스승이자 감독도 있었다. 김경민은 “내 인생에 엄청난 분이다. 로또 복권과

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감독님이다. 감독님을 만나서 좋은 축구, 선진적인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난해를 생각하면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승을 목표로 내걸었던 시즌이었지만 강행군 속에 아쉬운 경기들이 쌓였고, 결국 파이널B에서 생존 싸움을 하기도 했다. 김경민은 “지난 시즌 많이 힘들었다. 초반부터 우리가 가져가는 플레이 스타일 그런 부분에서 경기는 좋은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으니깐 선수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아마 감독님, 코칭스태프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기대에는 부족했던 지난 시즌이었고 여기에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적하면서 광주의 2025시즌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쏠린다. 하지만 김경민은 기대감으로 새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그의 자신감의 배경은 ‘이정효 감독’이다. 김경민은 “변화에 대한 걱정은 없다. 감독님이 계시니까 축구의 틀은 바뀌지 않아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며 “새로 합류한 선수들에게는 ‘집중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감독님이 방법을 알려주신다. 포지셔닝, 우선순위 등 진짜 다 알려주신다. 결국 선수 본인이 집중해서 생각하고 연구를 해야 감독님 전술이나 우리 팀 컬러에 따라올 수 있다. 정신 놓고 있으면 안 되고, 감독님이 소리친다고 해서 지극을 필요도 없다. 더 잘되라고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감독님이 인터뷰 중에 ‘소리치는 것에 얽매어 있는 선수는 경기에 몰입하지 못 하는 선수’라고 말하시는 걸 봤다”며 “그 말에 나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워낙 목소리도 크시고 진짜 귀에 쑊속 들어와서 나도 감독님이 뭐라고 했을 때 얽매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 인터뷰를 보고 ‘그렇지 그게 프로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성장을 위해서는 우



지난해 첫 ACLE와 국가대표를 경험한 광주FC의 골키퍼 김경민이 2025시즌 실점률에 신경 쓰면서 동료들에게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다. <광주FC 제공>

리가 준비한 것에 대해 경기장에서 몰입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올 시즌에도 ACLE와 리그를 병행하면서 달려야 하는 만큼 김경민은 ‘실점률’에 신경 쓰면서 동료들의 든든한 수호신이 되겠다는 각오다. 김경민은 “경기를 하다보면 무조건 힘든 시점이

나온다. 그 시점에 항상 우리가 실점을 한다. 내가 그런 순간에 얼마만큼 막아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순위가 달라질 것이다. 그게 또 내 역할이다. 축구는 실수의 연속이고, 예측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선방을 한다면 선수들이 버티는 힘이 더 생길 것이다”며 “내 자신과의 싸움

에 집중하겠다. 경기는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다. 상대에 대한 분석도 하지만 내 몸상태를 알고 집중해야 한다. 내 자신과 싸우면서, 선수들과 잘 이야기하면서 팬들에게 즐거운 경기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임대 이적 양민혁 여름에 돌아온다”

토트넘 구단 밝혀



한국 축구 간판 송민이 뛰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 구단은 양민혁(퀸즈파크 레인저스·QPR·사진)이 다음 프리시즌 북극해 출전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토트넘의 요한 랑 테크니컬 디렉터는 5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양민혁을 비롯해 임대 이적으로 팀을 떠나있는 선수들이 여름에 돌아온다고 밝혔다. 양민혁과 윌 랭커셔(웨스트 브로미치 앨비언), 루카 건터(월드스톤)를 함께 언급한 랑 디렉터는 “임대 이적은 선수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 “클럽 역사의 핵심 선수들도 임대를 거쳐 성장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민혁, 윌 랭커셔, 루카 건터는 좋은 환경에서 출전 시간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들은 여름에 돌아올 것이다. 프리시즌에 경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한국 프로축구 강원FC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영플레이어상을 받은 양민혁은 2024시즌 중인 지난해 7월 토트넘 입단을 확정해 화제에 올랐다.

입단 발표 당시엔 이달 토트넘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던 양민혁은 토트넘 측 요청에 예정보다 이른 지난해 중순 영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적응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 차례도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고, 결국 출전 기회를 찾아 챔피언십(2부리그)의 퀸즈파크 레인저스 임대 이적을 받아들였다. 토트넘 구단은 이적이 양민혁의 잉글랜드 무대 적응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안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올해 초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EPL 홈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민혁은 아직 어리고, 이곳에서 마주하게 될 리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지구 반대편에서 왔다”며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공은 어디로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 골든 1 센터에서 열린 NBA 농구 경기 1쿼터에서 올랜도 매직의 가드 앤서니 블랙(왼쪽)이 새크라멘토 킹스의 센터 아이작 존스(17)에게 반칙을 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시범경기 3월 8일 개막

KIA, 사직 롯데전 등 10경기

KBO 올 시즌 판도를 미리 엿보는 시범경기가 3월 8일 개막한다. KBO가 2025 KBO 시범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토요일인 3월 8일 막이 오르는 시범경기는 18일(화)까지 계속되며, 팀당 10경기씩 총 50경기가 치러진다. ‘다덴딩 챔피언’ KIA 타이거즈는 사직으로 가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시범경기 개막 2연전을 치른다. 수원(LG-KT), 청주(두산-한화), 대구(SSG-삼성), 창원(키움-NC)에서도 개막전이 진행된다. KIA는 사직에 이어 창원으로 건너가 10·11일 NC와 상대한다. 12일 휴식일 뒤 13·14일에는 두산을 상대로 실전에 나선다. 원정 6연전 뒤 15·16일 삼성과 홈에서 첫 일정

을 소화하는 KIA는 17·18일에는 SSG를 상대로 시범경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시범경기를 통해 올 시즌에 적용될 새로운 규정과 규칙도 확인할 수 있다. KBO는 변경된 ABS(자동투구 판독 시스템) 존을 활용해 스트라이크 판정을 하며, 피치클락도 운영된다. 또한 1루 페어지역 안쪽 홈 부분까지 달릴 수 있도록 확대된 새로운 3피트라인 규칙도 적용된다. 시범경기에는 인원 제한 없이 소속선수 및 육성선수가 출장할 수 있으며, 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된다. 연장전과 더블헤더는 진행되지 않고, 취소 경기는 재편성되지 않는다. 비디오 판독은 팀당 2회 신청할 수 있다. 2회 연속 판정이 번복될 경우에는 판독 기회가 1회 추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PGA 플레이 6초만 꾸물대도 ‘1벌타’

능장 선수 벌칙 강화... 1~5초 ‘벌금’·16초 초과면 ‘2벌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골프 경기를 지루하게 만드는 능장 플레이에 칼을 빼 들었다. LPGA 투어는 이번 시즌 첫 풀필드 대회인 파운더스컵 개막을 하루 앞둔 6일 열린 선수 회의에서 능장 플레이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28일 시작하는 포드 챔피언십 때 발표하겠다는 메모를 배포했다. LPGA 투어는 현행 경기 속도 규정은 유지하되 벌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능장 플레이 벌칙은 주어진 시간에서 1~30초 초과 때는 벌금, 30초 이상 초과하면 2벌타를 매기는 방식이다. 새로운 벌칙 규정은 5초 이내 초과하면 벌금, 6~15초 초과에는 1벌타, 16초 이상 초과하면 2벌타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수들한테는 벌금보다는 벌타가 더 무서운 벌칙이라는 인식이 전제된 개정안이다. LPGA 투어는 지난해 능장 플레이로 벌금을 받은 선수는 22명, 2벌타를 받은 선수는 9명이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규정을 적용했다면 23명

은 1벌타, 8명은 2벌타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PGA 투어가 능장 플레이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지난해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와 찰리 힐(잉글랜드)을 비롯한 정상급 선수들이 능장 플레이가 투어를 좀 먹는다고 목소리를 높인 게 계기가 됐다. 힐은 “능장 플레이로 세 번 적발되면 아예 투어 카드를 박탈해야 한다”고 극단적인 주장까지 내놓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을 받아본 코다는 골프 채널에 “몹시 바라던 일”이라면서 “예전에는 라운드하는 데 5시간이 안 걸렸는데, 요즘은 5시간 30분씩 걸린다. 너무 오래 걸리면 재미가 없다. 엄격한 규제가 골프 산업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도 올해 들어 경기 시간이 5시간 30분을 넘어가면서 능장 플레이를 근절하지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